이주민 법당, 독자성 확대에 협력 필요

조계종 · 마하이주민협, 〈이주민 불교공동체 조사연구서〉 발간

1995년 부천 미얀마 공동체가 결성되며 '이주민 공동체'란 개념이 정립된 지 20여년. 이제는 이주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종단차원의 포교정책을 수립해야한단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월 15일 조계종 총무원이 배포한 연구보고서 〈이주민 불교공동체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기 이주민 종교 공동체는 한국불교계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보였다면, 20년이 지난 오늘날 독립사찰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이주민 법당에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양방향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한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및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는 2016년 9~11월 베트남 · 태국 · 몽골 · 스리랑카 · 캄보디아 · 네팔 · 미얀마 · 방글라데시 총 8개국 이주민 법당 소속 대표자 2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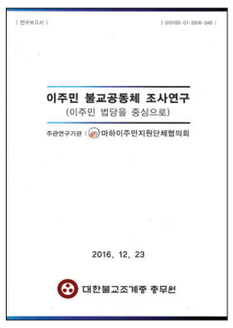
보고서는 이주민 법당의 다수를 차지하는 남방불교권(태 · 캄 · 미 · 스) 불교공동체들이 의존서 자립 형태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초기 생성된 남방권 불교공동체들은 한국사회 조력자에 힘입어 태동했다. 하지만 태동기를 지나 생겨난 후발신생 법당들, 또는 초창기 취약한 국면을 벗어나 자생력을 보유하게 된 이주민 법당들 가운데 점점 독자성을 표방하는 곳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근거로 자력으로 법당을 설립해 스님을 초빙한 최초 사례인 부평 미얀마불

2016년 베트남 · 미얀마 등 8개국
이주민 법당 대표자 28명 심층면접
생성 초기 한국사회 의존 경향서
법회 운영 등 독립적 형태 나타나
"협력체계 약해질 수 있는 시기"
종단 '이주민 기본정책' 수립해야

교선원, 대구 –w따수카 미얀마 사원, 부산 법승담마야나선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독립사찰로 진화한단 것은 각 공동체의 자율성이 더 강화한단 것이며, 이는 자칫 잘못할 경우 그동안 맺어왔던 협력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주민 법당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협력방안으로는 △이주민 법당의 맞춤형 지원 방향성 도출 △외국인 스님의 비자연장 및 단기 초청 업무 개선 △법률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자문 지원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교방안 수립 △법당운영 컨설팅 제공 △외국인 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조직적 협력방안 모색 △총무원의 이주민 법당 스님 초청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법당 맞춤형 지원 방법에 대해선 "남방과 북방불교 발전양상이 다르고, 각 법당별로 필요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도 스님이 없는 이주민 법당에는 스님 파견 및 지원이 가능한 주변 사찰을 소개해주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교방안 수립도 주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는 심층면접 결과 불교공동체서 남성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반면,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 및 시댁의 종교에 따라 신행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주민 법당서 신행활동을 주도하고 재정적 부담을 책임지는 주축은 남성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런 경향은 남방불교권, 그 중에서도 미얀마와 스리랑카서 현저히 나타난다"며 "여성들은 1년에 2~3번 일회성 행사에 참가하며, 일상적 참여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주민 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와 가정 모두에 대한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외국 불교 친선사찰을 선정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제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종단 차원의 이주민정책 가칭 '조계종 이주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조계종 이주민정책 기본계획'은 협력 · 통합 · 인권 · 안정의 4가지 방향성에 따라 △한국불교와 외국불교와 국제협력 강화 △한국 불자와 이주민 불자 교류 및 통합프로그램 실행 △불교인권을 바탕으로 한 이주민 인권 실현 △이주민 법당의 안정적인 운영 및 행정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조계종 전법단, 분야별 활동 강화 나서

포교원 신임 단장 및 임원진 위촉, 신년사업도 공개

어르신전법단 신규 출범
올해 예산 1억 4300만원

조계종 포교원이 어르신 전법단을 비롯한 각 전법단 구성을 완료하고 새해 전법을 힘차게 시작했다.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전법단 대표자회의를 열고 새로 출범한 어르신 전법단과 신도시, 청년대학생, 국제, 어린이청소년 등 5개 부문 전법단 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어르신 전법단 초대 단장은 성운 스님(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이 맡았다.

새로 출범한 어르신 전법단은 불교노인 복지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신행활동 지원을 맡게 된다. 새해 계획으로는 △어르신법회 거점사찰 선정 △지역별 합동법회 △기초교리교육 △수계식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 문화여가 지원 등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어르신 전법단 부단장 정관 스님은 "노인복지시설과 사찰,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법사 스님을 중심으로 인재풀을 형성해 포교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포교사단과도 연계해 어르신 포교사를 양성하고 복지시설 내 불교반과 법당 등을 만들어 신행활동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전법단장에 계성 스님(강화 법왕사 주지), 신도시 전법단장에 도봉 스님(성남 원적정사 주지), 어린이청소년 전법단장에 성진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상임이사), 청년대학생 전법단장에 본공 스님(한양대불교학생회 지도법사)이 새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신년계획도 발표됐다. 경찰전법단은 권역별 간담회 등 네트워크 강화, 중앙경찰학교 법당 불사 8월 회향을 공개했으며, 교정교화전법단은 제주소년원 및 교도소 지원,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1차 전법단 대표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이 활발한 전법을 다짐하고 있다.

바자회 개최를 공개했다.

신도시전법단은 지역 특산품 판매를 통한 활동기금 마련, 병원 전법단은 환우돕기 바자회, 체육인전법단은 10월 13일 수덕사서 전국체전 선전기원법회, 청년대학생전법단은 연 2회 지도법사 간담회 및 SNS 전법, 국제전법단은 국제포교스님 양성 등을 신년계획으로 들었다.

한편, 포교원은 올해 전법단 지원예산을 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새터민전법단도 출범시켜 총 12개 분야에서 전법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각 전법단 현황을 점검해 행정을 지도하기로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최근 300만 불자 감소라는 충격적인 소식 이후 다양한 포교 종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법은 불교의 가장 큰 공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차GBC 주민설명회, 진통 끝 '무산'

봉은사대책위-강남구, 1시간 실랑이… 입장차 못 좁혀

현대차 신사옥(GBC)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결과 초안 주민설명회가 봉은사 측과 강남구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강남구(청장 신연희)는 2월 14일 오전 10시 삼성1동주민센터 대강당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앞두고 봉은사역사문화환경보존 대책위원회와 갈등이 빚어졌다.〈사진〉 행사장에는 봉은사 측 스님과 신도 40여 명과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대차 사업담당자인 이중열 상무, 이희현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자리했다.

전해준 봉은사대책위 팀장은 "1년 동안 수없이 의견조율을 요청했지만 사업주체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의견 수렴했다는 명목 아래 다음 절차가 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안이든 가안이든 현대차와 봉은사 등의 의견이 공평하게 개진될 수 있는 자리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희현 담당관이 "초안 설명을 들은 뒤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중열 현대차 상무는 "초안일 뿐이다. 앞으로 본안을 만들고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공청회 또한 열 수 있으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진 못했다.

1시간가량 주민들은 "일단 초안 설명을 듣자"는 입장과 "핵심관계자 입회하 공정한 자리에서 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양측 갈등은 강남구 측에서 "봉은사 방해로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공식 중단을 선언하며 마무리됐다. 봉은사 측은 "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설명회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채식하고 기부하고… 생명살림 나선다

조계종, 매주 木 '채식day' 캠페인 전개

채식을 통해 불교 계율 중 첫째인 불살생(不殺生)을 실천하면서 지구환경을 변화시켜나가는 운동이 전개된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포교원 · 중앙신도회 · 포교사단 등은 2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생명살림캠페인 '채식day, 기부day'를 선포하고, 건강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운동을 전개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선포식에는 교역직 스님과 신행단체장을 비롯해 한국채식연합 대표와 한국고기없는월요일 대표가 참석한다.

이 캠페인은 1주일에 하루(매주 목요일) 채식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한 뒤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에서 생명살림 기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부는 △치유와 상생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 △결식아동을 위한 아름다운동행 기부 등 2가지다. 채식 실천 1회를 1,000원으로 산정해 1개월 4,000원을 기부자가 직접 기부하면 된다.

신청은 조계종 홈페이지(종무행정-채식day) 또는 전화 (02)730-6690으로 하면 된다. CMS 자동이체 기능이 없어 이름과 연락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된다. 또한 카카오톡 엘로아이디 '채식day기부day'를 친구추가 하면 매주 목요일 채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성역화추진위 관계자는 "채식주의자가 되자는 운동이 아니다. 불교정신에 따라 생명살림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살생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정작 육식하지 말라는 목소리는 낮았다. 구제역 등 육식으로 인한 폐해가 확대되는 시기에 체질과 가치관을 바꿔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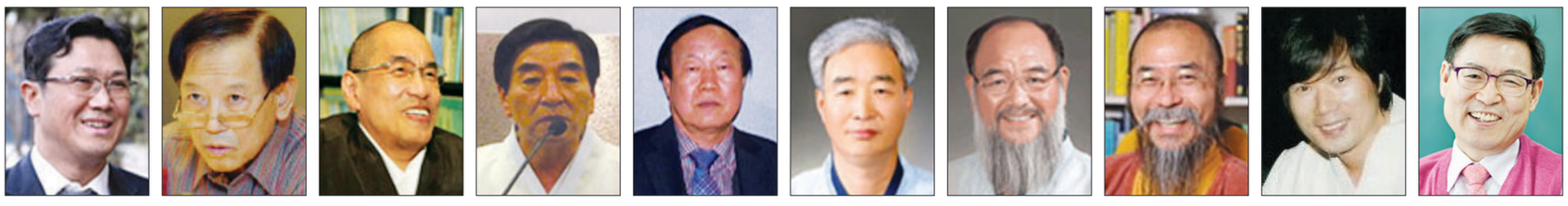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스승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9일(목) 17:30~ 등록금 240만원
홈페이지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www.gfca.kr/
다음카페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http://cafe.daum.net/fca2
심화과정 FCA현대사주학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